

#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위치 비정(批正)에 관한 연구

## Geographical Study on the Location of Nokdun-do in lower Tuman river

이옥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ohlee@ewha.ac.kr)

최한성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hansungdrchoe@hanmail.net)

안재섭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jsa@dongguk.edu)

본 연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거주지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두만강 하구 지역의 녹둔도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 지리적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현장답사와 위성영상 자료 분석, 현지에서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녹둔도는 러시아로의 연육이라는 자연 변화와 조선 조정의 무관심 속에서 러시아령이 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주권 상실과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기록 속에서 녹둔도는 우리의 섬으로, 함경도 경흥 지방 주민들의 농토로, 또 변방방어의 전초기지로 서술되고 있다. 옛 기록 속에서 녹둔도는 비옥한 하천 퇴적물로 덮힌 상당한 규모의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토성과 둔전 설치의 흔적도 보인다. 한편 이곳의 풍부한 산물은 두만강 좌안 여진 부족들의 약탈 대상이 되어 이순신 장군이 격전을 벌인 녹둔도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녹둔도가 토사의 퇴적이라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러시아로 연육되었고, 이 후 우리의 무지 속에서 체결된 북경조약으로 부당하게 러시아로 편입되었다. 비록 러시아에 영속되었으나 이 일대는 조선 초기 이래 조선인들이 촌락을 이루어 생활해왔으며 1937년 강제 이주 전까지 녹둔 지역 일대에는 10여 개 이상의 조선인 마을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나 일본 측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하구지형이 크게 바뀌어 녹둔도 본래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으나, 고기록을 근거로 한 현장답사에서 확인된 논자리, 집터, 연자방아와 각종 유물 등의 잔형을 통해 녹둔도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의 영역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특히, 토성으로 짐작되는 구조물의 확인으로 초기 녹둔도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조선 초기부터 우리 선조들의 계절적 이주에 의해 개간된 녹둔도의 실체는 사라졌으나, 그들이 녹둔도를 거점으로 두만강 좌안 서쪽 멀리로 거주영역을 확대해 갔음을 여러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녹둔 지역 일대는 영토분쟁의 소지가 잠재해 있는 지역이지만, 다른 한편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에서 인접 3국이 접경하는 중심지역이다. 분쟁과 협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녹둔 지역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요구된다.